

Ⅵ 대횡간도, 소횡간도



VI. 대횡간도 소횡간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주요 항과의 거리

대횡간도에는 주요 항으로 대횡간도항이 있고, 소횡간도는 작은 선착장이 있다. 대횡간도항에서 여수여객선터미널까지는 직선거리로 17.8km 떨어져 있고, 인근 화태도의 월전항과 마죽항까지는 각각 1.9km 떨어져 있다. 소횡간도 선착장에서 대횡간도항까지는 1.75km 떨어져 있다.



대횡간도 선착장



대횡간도 선착장 대합실



소횡간도 선착장

2) 인구현황과 토지현황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횡간도와 소횡간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대횡간도에는 주민등록상 63세대 99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 중 남자는 48명이고, 여자는 51명이다. 소횡간도에는 8세대 11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이 중 남자가 8명, 여자는 3명이 살고 있다. 대횡간도의 면적은 0.34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4.8km이고, 소횡간도의 면적은 0.077km²이고 해안선의 길이는 1.98km이다.

인구현황(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남	여
대횡간도	63	99	48	51
소횡간도	8	11	8	3



대횡간도 전경



소횡간도 전경

3) 공공기관

(1) 횡간경찰출장소

대횡간도에 경찰행정연락소가 설치된 것은 1974년 4월이었다. 이후 1976년에 2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업무를 보다가 1979년 2월 횡간경찰출장소로 개칭하였다. 1992년 10월 폐소하였다.

-
- 1974. 04. 15. 횡간경찰행정연락소 설치
 - 1976. 횡간리 258번지에 벽돌슬라브 20평 건물 신축
 - 1979. 02. 13. 횡간경찰출장소로 개칭
 - 1992. 10. 26. 횡간경찰출장소 폐소

(2) 소횡간경찰출장소

소횡간도에는 대횡간도보다 빠른 1968년 11월에 경찰행정연락소가 설치되었다. 1979년 2월에 소횡간경찰출장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2년 5월 폐소하였다.

-
- 1968. 11. 01. 횡간리 30-1번지에 소횡간경찰행정연락소 설치
 - 1979. 02. 13. 소횡간경찰출장소로 개칭
 - 1992. 05. 30. 소횡간경찰출장소 폐소

4) 교육기관

(1) 화태초등학교 여동분교장

1951년 6월 횡간리 253번지에 화태국민학교 횡간분교장으로 개교하였다. 학생 수 증가로 1967년 12월 여동국민학교로 승격하였다가 차츰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1990년 3월 화태국민학교 여동분교로 격하하였다. 2014년 2월 폐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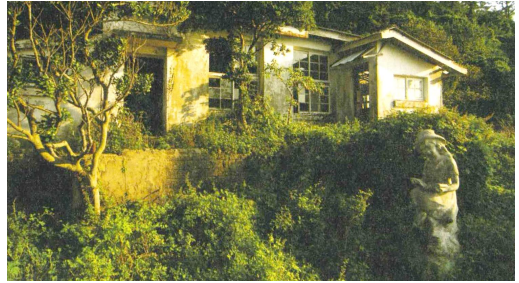


화태초 여동분교

- 1951. 06. 21. 여수화태국민학교 황간분교장 개교(황간리 253번지)
- 1967. 12. 01. 여동국민학교로 승격
- 1990. 03. 01. 화태국민학교 여동분교로 격하
- 2014. 02. 28. 화태초등학교 여동분교장 폐교

(2) 여동국민학교 소횡간분교장

1968년 3월 여동국민학교 소횡간분교장이 황간리 20-2번지에 개교하였으나, 학생 수 감소로 1990년 3월 폐교하였다.



여동초등학교 소횡간분교¹⁾

- 1968. 03. 01. 여동국민학교 소횡간분교장 개교
(황간리 20-2번지)
- 1990. 03. 01. 여동국민학교 소횡간분교장 폐교

5) 의료기관

(1) 황간보건진료소

1988년 황간리사무소에 황간보건진료소를 개소하였다가 다음 해인 1989년 황간리 346번지에 벽돌슬라브 22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이후 황간리 321-1번지로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2021년 리모델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황간보건진료소

1) 이재연, 『한국의 섬』, 2010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최고 지점은 대횡간도가 91m, 소횡간도가 60m이다. 대횡간도는 전체적으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고, 경사가 급한 남쪽 해안과 남동 해안에는 감담골여와 몽여 등 시스택과 파식대가 발달하고 있다. 대횡간도 중앙에 있는 요망산을 정점으로 완만한 편이며, 요망산 기슭에 후박나무 군락이 있다. 경사가 완만한 북쪽 사면에는 비교적 넓은 경작지와 자연마을이 입지하고 있다. 소횡간도는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으며, 대체로 완만한 구릉지를 이루어 섬 중앙부에 경작지가 분포한다. 경사가 급한 서쪽 해안에는 파식대와 해식애, 시스택 등의 암석해안이 발달한 반면, 평지를 이루는 남쪽 해안은 자갈해안이 발달하고 있다.



남쪽 암석해안



몽돌 해변

(1) 몽돌해변

대횡간도항에서 발 사잇길을 따라서 폐교된 화태초등학교 여동분교 뒤편의 농경지를 지나가면 소규모의 몽돌해변이 나타난다.

소횡간도에서는 무여와 큰여 사이에 큰자갈과 잔자갈들이 쌓여 몽돌해변을 형성하고 있다.

2) 지질

대횡간도와 소횡간도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화성암인 중성 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횡간도 지질도2)

2) 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3) 토양

대횡간도와 소횡간도 모두 구릉지를 중심으로 안산암질 응회암 풍화토가 잔적되어 비교적 얇은 토양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산록의 하부와 곡두부는 사면에서 공급되는 풍화산물이 봉적층을 이루고, 평지를 이루는 중앙부에 충적토가 발달하였다.

4) 기후

인근의 대두라도와 비슷하다.

5) 주변 해역조류

대횡간도 북동 해역은 수심 3m 이하의 간석지와 수중 바위가 분포하며, 횡간수도에 접한 화태도와 소두라도 해안에는 암석해안이 발달하여 있다. 수심 3m 이하의 간석지가 발달한 곳을 제외하면 횡간수도 평균수심은 20m 내외를 유지하며, 최대 수심은 약 28m 정도이다.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매우 산재해 있어 유로(流路)가 복잡하고, 유속(流速)은 좁은 수로에서는 최고 1.0Kn 내외로 느린 편이나 돌산도와 대횡간도 사이는 2.6Kn으로서 빠른 편이다.

(단위:kts)

항로구간	현황		현황	
	유형	유속	유형	유속
금오수도	서류	4.4	동류	3.4
횡간수도	서류	2.9	동류	2.6



황간도 조류³⁾

6) 주변 환경

마을은 섬 북서쪽에 자리잡고 있고, 마을 앞에는 인공축조하여 황간해안길을 만들었으며, 선박들의 계류장 및 항만 건설을 위한 방파제가 건설되어 있다. 방조제 외해 쪽에는 어류양식 가두리시설이 있다.

소횡간도는 북측의 마을 앞에는 선착장으로 이동이 편리하도록 소횡간도길을 건설하여 인공 축조를 하였다. 또한 선박들의 계류장 및 선착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방파제가 건설되어 있다.

7) 주변 도서

대횡간도의 북쪽으로는 돌산의 작금항이 있고, 서쪽으로 화태도와 나발도가 있다. 서남쪽으로 소두라도와 대두라도가 있고, 남쪽으로 소횡간도와 금오도가 있다.

소횡간도는 북쪽으로 대횡간도가 있고, 서쪽으로 소두라도, 남동쪽에 금오도 여천항이 있다.

3) 출처 : http://xn-pr3bz5p.com/ebook/catImage4/3/3_seaway.pdf

다. 식생과 생태

횡간도는 땅이 기름져서 모든 식물의 생육상태가 다른 지역에서 동정되는 식물과는 달리 아주 활발하다. 흔한 마삭줄만 하더라도 돌담 사이로 엉켜서 자라면서 풍성하고 싱싱하게 꽃을 피운다. 횡간도는 이렇게 생육조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잘 보존되고 있어서 생태계의 보고이다.

여기저기 밭에 걸리고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칩도 횡간도에서는 특별하다. 잎이 크고 잎맥이 선명하며 줄기도 튼실해서 어릴 적 균것질거리로 튼실한 칩줄기를 찾던 추억에 빠지기 쉽다. 칩꽃도 탐스럽고 예쁘게 피어서 이곳의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횡간도에는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 특히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도 많고, 원시림과 같은 1차림을 이루고 있다.

1) 대횡간도와 소횡간도의 식물

대횡간도와 소횡간도 등에 출현하는 주요 식물군은 산지낙엽활엽수림, 산지침엽수림, 상록활엽수림, 식재림, 산지초원식생으로 분류된다. 산지낙엽활엽수림으로 머귀나무군락, 산벚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 예덕나무군락, 철쭉군락이 있다. 상록활엽수림으로 까마귀쪽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군락, 굴피나무군락, 다정큼나무군락, 돈나무군락, 동백나무군락, 사스레피군락, 새덕이군락, 생달나무군락, 우묵사스레피군락, 참식나무군락, 후박나무군락 등이 있다.



당숲

2) 생태자원

요망산 기슭에는 후박나무 군락이 있다. 초등학교는 폐교된 지 오래고, 운동장에는 공지를 활용해서 마늘을 심었다. 소횡간도의 경우 섬의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섬의 고도가 낮아서 산 중턱에도 밭을 일굴 수 있다. 실제로 산지로 사용 되는 공간은 거의 없고 땅을 일굴 수 있는 공간은 모두 밭으로 일구었다.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의 1960년대 이전 땔감을 쓰던 때와 같이 벌거숭이 섬을 볼 수 있다.

대횡간마을 동쪽 산 중턱에 당숲이 있는데 대횡간도에서 숲을 이야기할 때 당숲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횡간도 동쪽에 있는 느티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이 보호수를 보면서 횡간도 사람들은 길흉을 점쳤다. 느티나무의 북쪽 가지가 무성하면 위쪽 시절이 좋고 남쪽 가지가 무성하면 아래쪽 마을의 시절이 좋다(풍년이 든다는 말이다)고 한다. 이는 느티나무의 성장 상황이 바람이나 자연의 영향을 받아 그 지역의 경작에 필요한 자연환경을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속설로 추정된다.

3) 주요식생



우목사스레피



거지덩쿨



인동덩쿨

대횡간도의 주요 식생은 섬의 중앙에서 남쪽방향으로 곰솔군락이고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동백나무를 비롯한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섬의 서북쪽 해안을 따라 어가와 농경지가 있고, 휴경지에는 노방잡초군락인 칩군락, 망초군락, 억새, 환삼덩굴, 바랭이군락 등이 출현하였다. 폐가에 자라고 있는 거지덩쿨 등이 많고 담벼락들은 주로 마삭줄이 감당하며 인동덩굴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당숲 안에도 산딸나무 종류들이 얼기설기 얽혀서 숲속으로 진입이 어려울 정도이다.

소횡간도의 주요 식생은 곰솔군락이고 해안을 따라 서식하고 있으며, 섬의 중심부에는 농경지가 있고, 휴경지에 망초군락, 환삼덩굴, 바랭이군락이 출현하였다.

이 지역에만 있는 특산식물로는 금오치자가 있다. 금오치자는 남면 금오도와 횡간도 등에 분포하는 남면 지역의 특산종으로 등덩굴, 영주치자(북한), 영주덩굴, 수화봉래갈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꽃은 7월에 잎겨드랑이에서 아래로 1~2개(드물게 3개)가 피고 화관은 백색이다. 수술은 5개가 교대로 뺨뺨이 접하고 있고, 과실은 구형으로 적색이다. 오래된 줄기는 흰빛을 띠나 녹색으로 등글고 새로운 줄기는 가늘고 길며 수관부에 발달한 잎과 줄기는 녹색이나 숲속에 가는 줄기는 약간 보라색을 띤다. 일반적인 특징은 영주치자와 달리 꽃잎과 꽃받침조각에 털이 있다. 장과의 형태도 영주치자는 타원형인 것에 비해 본종은 구형이고 생육지에 있어서 영주치자는 들담이나 숲가장자리에 분포하고 본종은 숲속에서 수관 층에 발달하는 점에서 구분된다.⁴⁾

4) 식물상⁵⁾

대횡간도에서 출현하는 관속식물은 27과 35속 55종, 2변종이 있다. 이 지역의 특징종은 상록수종으로 곰솔, 생달나무,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송악 등이며, 초본류는 그늘사초, 새, 보춘화, 풀고사리, 봉의꼬리, 갯까치수영, 해국, 자란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가 주변으로 비름, 한련초, 진득찰, 쑥, 가막사리, 쇠뜨기, 환삼덩굴, 바랭이, 잔디, 토끼풀, 파리풀, 망초, 개망초, 꽃향유, 맥문동, 자귀풀, 땃땃이덩굴, 실새풀, 주름조개풀, 띠, 억새, 솔새, 비수리, 짚신나물 등의 초본류가 출현하고 있다.

소횡간도에 출현하는 관속식물은 대횡간도보다는 조금 작은 25과 35속 51종, 1변종이 출현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징종은 상록수종으로 곰솔, 소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초본류는 봉의꼬리, 십자고사리, 갯까치수영, 자란 등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외 민가 주변으로 쇠뜨기, 환삼덩굴, 바랭이, 잔디, 토끼풀, 파리풀, 망초, 개망초, 꽃향유, 맥문동, 자귀풀, 땃땃이덩굴, 실새풀, 주름조개풀, 띠, 억새, 보춘화, 짚신나물 등의 초본류가 출현하고 있다.

4) 한국식물분류학회지. vol 22. 1992 풀베개: 나물먹고 물마시고

5) About전남의섬

5) 육상동물

대항간도와 소항간도의 육상동물은 인근의 대두라도와 비슷하다.

6) 해양생물

대항간도와 소항간도의 해양생물은 인근의 대두라도와 비슷하다.



대항간도 선착장 주변 갈매기떼

7)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981년 12월 23일 14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금오도 지구에 속한다.



국립공원 횡간도 비

8) 보호수

대항간도의 보호수는 횡간리 153번지에 지정번호 15-2-5-4에서 15-2-5-7까지 4그루의 후박나무가 1982년 12월 3일에 각각 지정되었다. 수령은 모두 약 300년 정도이고 높이는 각각 20m, 22m, 25m, 13m이다.

또한 횡간리 280번지에 지정번호 15-2-5-8로 느티나무가 2007년 5월 16일에 지정되었다. 수령은 약 300년, 수고는 약 14m이다.



15-2-5-4 보호수(후박나무)



15-2-5-5 보호수(후박나무)



15-2-5-6 보호수(후박나무)



15-2-5-7 보호수(후박나무)



15-2-5-8 보호수(느티나무)



15-2-5-8 보호수(느티나무)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대횡간도(大橫干島)는 『신증동국여지승람(순천)』에 “대횡간도(大橫看島)는 소내발도 남쪽 30리에 있다.”고 하여 그 전부터 대횡간도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돌산군읍지』에 “대횡간도는 남쪽 20리에 있다. 수태도 동쪽에 있으며 주위가 10리이다.”는 기록도 있다.

옛 지도인 『동여비고(전라도)』에 돌산도 남동쪽으로 대횡간도가 묘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고지도에도 ‘횡간도’ 혹은 ‘대횡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지형이 비뚤어졌으므로 비간섬 또는 횡간도라 부르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조선 후기 고지도 중에는 비간도(非間島)로 표기한 것도 있다.

소횡간도(小橫干島)는 『신증동국여지승람(순천)』에 소내발도 남쪽 30리에 있는 섬으로 소횡간도(小橫看島)가 처음 나타난다. 옛 지도에서는 『동여비고(전라도)』, 『1872년지방지도(순천)』, 『청구도』 등에 소횡간(小橫看)으로 나타난다.



대동여지도



청구도 대횡간도



청구도 소횡간도

나. 마을유래

1) 대횡간마을

1626년 돌산 죽포에서 천안전씨 윤동이 처음으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이후 돌산 신기에서 김억이 이주했다.

1630년경 구례에서 강만태가 이주하였고, 달성서씨가 이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횡간도의 우리말 지명은 '빗간이'로 섬의 지형이 북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위치하고 있어 부르게 된 이름으로 완도군 소안면에도 있는 섬 이름이다.

빗간이의 지명 전설도 전해져 오는데, '큰빗간이' 대횡간도에는 섬의 북쪽 건너편인 돌산 신북리에 '북병끝'이라는 지명이 있어 풍수지리설에서 이 지역을 빗간다하여 '빗간이'라고 불러오다가 '빗길횡간(橫干)'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는 임진왜란 때 왜병들이 바다에서 화살을 쏘면 이 섬이 막고 있어 빗겨 나갔다 하여 '횡간이'라 하였다는 전설도 전해온다.



대횡간마을



소횡간마을

2) 소횡간마을

소횡간도에 사람이 처음 들어온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630년경 대횡간도에서 진주강씨, 달성서씨 등이 건너와 정착하였다고 한다.

소횡간도는 남쪽 끝이 높고 북쪽은 낮은 지세로 중간쯤에 해안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꼭짓점에 송전철탑이 있다. 이 송전철탑이 완성된 후 2006년 12월 13일에 전기가 공급되었다. 정기 여객선이 없다가 2023년 12월에 섬섬여수2호가 투입되어 운항하고 있다.

다.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1) 횡간도 조개더미

대횡간도의 조개더미 유적은 화태초등학교 여동분교장 서쪽 바닷가에 있다. 조개 껍질의 퇴적 상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층의 두께가 북쪽은 약 20cm, 남쪽은 약 1m에 이른다.

조개껍질층 아래 10cm 정도의 점토층에서 덧무늬토기 조각이 나타나고, 점띠무늬토기 조각은 상층부에서 발견됨으로써 돌산 송도 조개더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덧무늬토기는 석영과 장석이 많이 섞인 진흙을 바탕흙으로 사용해 안과 바깥면 모두 암갈색이지만, 속심은 검은 편이다. 안쪽 면에 일부 물손질한 가로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아가리 쪽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위쪽의 무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삼각형 덧띠를 여러 줄 내려붙여 간격을 만든 후, 그 사이에 세로로 덧띠를 촘촘하게 채웠는데, 한 칸씩 비워 두었다. 아래쪽은 두 줄의 덧띠를 수평으로 붙여 간격을 나눈 뒤 윗부분에서 덧띠를 채운 부분은 계속해서 수평으로 붙였으나, 덧띠를 채우지 않은 곳은 수직으로 붙였다.⁶⁾



횡간도 조개더미(2008년)

2) 놀이청

횡간도 동북쪽 해안에는 50평 정도의 넓은 파식대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곳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유성채, 군관과 절충장군을 겸한 口탁·안해우, 순천부사 박두세, 방담첨사 이이준 무인년 오월 口일(節度使柳星彩 軍官折衝兼 口鐸·安海宇 順天府使朴斗世 防踏僉使李以峻 戊寅五月 口日)”이라고 새겨진 바윗글이 있다.⁷⁾

6) 국립광주박물관, 『돌산 세구지 유적』, 광주 : 라인원색, 1994, 91~93쪽.

7)32) 여주시·조선대학교박물관, 『여주시의 문화유적』, 디자인아트, 2000, 386~387쪽.

절도사와 순천부사, 방담첨사 등 군사적으로 전라좌수영에 소속된 관직과 이름으로 보아 방담진이 설치된 이후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새긴 것으로 보인다.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유성채(柳星彩)의 재임 기간이 1695년 8월부터 1697년 5월까지였기 때문에 바위에 새겨진 ‘무인년’은 숙종 24년 무인년(1696년)에 해당한다.

지방관들이 무예를 연마하기 위해 횡간도에서 건너편 돌산읍 금성리에 있는 해식동을 과녁삼아 활을 쏘았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이 파식대는 관리들의 놀이터 역할도 겸했다고 한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놀이청’ 또는 ‘청노리’라고 부르고 있으며, 바위 부근 해식동에 이무기가 살았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놀이청바위



놀이청 글씨

3) 대횡간도요망(大橫干島瞭望)⁸⁾

남면 횡간리 123번지의 북위 34° 34′ 35.56″ 동경 127° 45′ 38.54″ 해발 90.6m인 마을의 요망산(瞭望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화태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가, 남쪽으로 면소재지가 있는 금오도가 있다. 산정에서는 주변의 바다와 섬들을 사방으로 조망이 가능하며, 북쪽으로 돌산도의 천왕산 아래로 요망을 관장하였던 방담진이 있다.

8)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비지정 문화유산 기초학술조사』, 2019.

대횡간도요망은 조선후기의 지방도 「순천부지도」와 「순천방답진지도」에 나타나는 데, 「순천부지도」에는 해중의 대횡간도 산사면에 황색 ‘철(凸)’자 형태로 작게 표현 후 ‘요망’이라 표기하였다. 「순천방답진지도」에는 해중의 내횡간도(內橫干島) 산정부에 가옥 형태로 표현 후 ‘요망(瞭望)’이라 표기하였다.

요망지로 추정되는 산정에는 헬기장이 시설되어 있으며, 헬기장은 2층 구조로 1층 높이 1.0m, 지름 15.0m이며, 2층 높이 0.8m, 지름 4.0m이다. 남쪽으로 평탄지가 있으며, 민묘 2기가 있다. 헬기장 남서쪽으로 요망대 방호벽 일부가 남아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요망 시설은 헬기장 내부에 그대로 둔 채로 외부 축대를 쌓았다고 하며, 훼손된 요망대의 구조는 자연 석재를 이용하여 쌓은 높이 약 2.0m, 지름 약 4.0m의 원통형으로 내부 공간으로 출입구가 있는 형태였다고 한다.

주변 대응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방답진 5.7km, 소횡간도요망 1.6km, 개도요망 10.1km, 나발도요망 2.0km이다.



헬기장 축대



서쪽 잔존 방호벽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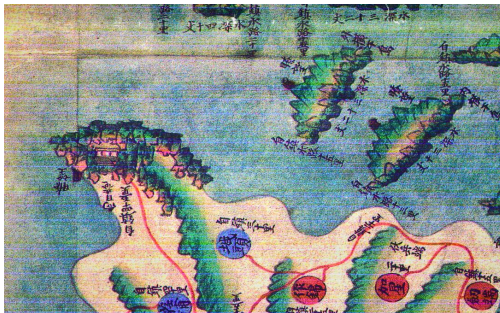
4) 소횡간도요망(小橫干島瞭望)⁹⁾

남면 횡간리 32-1번지, 32-3번지의 북위 34° 33' 48.23" 동경 127° 45' 56.44" 해발 60.0m인 큰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화태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가 있고, 남쪽으로 면소재지가 있는 금오도, 북쪽으로 대횡간도와 돌산도의 천왕산 아래로 요망을 관장하였던 방답진이 있으며, 동쪽은 망망대해다. 산정에서는 주변의 바다와 섬들을 사방으로 조망이 가능하다.

9)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비지정 문화유산 기초학술조사』, 2019.

소횡간도요망은 ‘조선후기의 지방도’의 「순천부지도」와 「순천방답진지도」에 나타나는데, 「순천부지도」에는 해중의 소횡간도(小橫干島) 산사면에 황색 ‘철(凸)’자 형태로 작게 표현 후 ‘요망’이라 표기하였다. 「순천방답진지도」에는 해중의 외횡간도(外橫干島) 산정부에 가옥 형태로 표현 후 ‘요망’이라 표기하였다.

요망지로 추정되는 산 정상에는 등대가 시설되어 있어 훼손으로 인하여 요망 유적은 찾을 수 없다. 주변 대응 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방답진 7.2km, 대횡간도요망 1.6km, 개도요망 2.6km, 대두라요망 1.7km, 두라도요망 3.3km 등이 있다.



순천방답진지도 외횡간도요망



요망추정지 산정상부 등대

5) 관왕묘(關王廟)

관왕묘는 중국의 삼국 시대 촉한의 장수였던 관우를 모시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다.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당시 참전했던 명나라 장군들이 관우의 혼령이 명나라 군인을 돕는다는 설이 있어 설치하기 시작했다.

대횡간도의 관왕묘는 1730년(영조 6)에 세워졌다는 조사 보고서가 있으나 근거가 불확실하고, 조선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 관왕을 모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관우의 초상화를 각자의 집에 마련해 제사를 모셨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횡간도, 화태도, 나로도, 보성군 등으로 늘어나자, 사당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최초의 사당은 횡간리 280번지 대나무밭에 위치했으나, 화태도에 사는 추근호 씨의 할아버지 추희조 씨의 선몽에 의해 현 위치로 옮겨졌다고 한다.

현재의 관왕묘 건물은 해방 후에 중수한 것으로, 마을 남쪽 언덕에 대지 66m²에 건평 13m² 규모의 목조 슬레이트 건물이며, 내부에는 1914년에 제작한 관왕의 벽화가 걸려 있다.

중국의 관우, 유비, 장비 3인은 같은 제실에 모셨고, 보정대사(普靜大師)가 옥천산에 암자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옥천대사(玉泉大師)로 불렸던 스님상은 다른 방에 모셨다. 옥천대사는 젊었을 때부터 관우와 잘 알고 지낸 스승이자 벗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었으며, 죽은 관우가 가끔씩 나타난다거나 자신의 목을 찾아 달라고 부탁한다는 이야기가 산 아래 마을로 퍼져, 마을 사람들이 관우의 사당을 세우고 제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 관우에 대한 신앙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관우는 병을 치유하는 신, 과거 급제, 복이나 행운을 비는 사람, 장군, 재물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관우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유교적 가치인 충의뿐만 아니라 민간 신앙과 결합함으로써 나쁜 일을 없애고 복을 받들고자 하는 민간 신앙으로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왕묘에서는 일 년에 경칩과 상강 두 차례 제를 올렸다.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집안의 후손들 24~26명이 계를 조직해 자금을 모아 두었다가 제비로 사용했다.

이 계에 들지 않은 마을 사람들도 설날에는 성묘한 뒤 대부분 관왕묘에 가서 절을 하였다. 관왕묘에는 옛날부터 칼과 초상화, 책 등이 잘 보관되어 왔는데,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서에서 빼앗아 갔다.

그동안 어업에 종사하면서 제사에 참여해 온 집안의 후손 40여 명이 광역적인 관왕계를 조직해 순서대로 제주를 뽑아서 운영해 왔으나, 고령화와 재정 부족 등으로 관왕제와 관왕계의 명맥이 30년 전에 끊어져 버렸고, 당집도 거의 방치되어 있다.



관왕묘

대형간도 관왕묘는 여수 및 도서 지역에서 관우를 모시는 유일한 사당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제인 말 신앙(馬信仰)과 중국의 관왕 신앙이 복합된 의례로서, 보존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당집의 보수와 관리 및 당제에 대한 지원 역시 시급하다.



관왕묘 내부

라. 횡간도의 어제와 오늘

1) 전복을 따는 잠수군

『호좌수영지』에 따르면 횡간도는 조선시대 때 전복을 잡아 바치는 잠수군들이 살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라좌수영에 육류를 공급하던 푸줏간(肉庫)은 각종 어물을 노동력별로 고르게 나눈 뒤 별도로 보군창(補軍倉)을 만들어 이용하되 산 어물은 시장 가격에 따라 사서 쓰고(費用) … 전복은 소속된 횡간도 잠수군처에서 벼 1석에 100개와 바꾸어 쓴다.”

나중에 순천 부사가 되었던 김윤식은 횡간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채복아(採鰓兒)

김윤식(金允植)

횡간도에서 전복을 따는 아이는
누런 눈동자 붉은 머리 생김새가 특이하다.
자맥질을 하면 두 발이 거꾸로 서 있고
바다에 잠기면 물거품이 생겨나네.
잠깐 사이 다시 물 위로 나왔다가
복호 장소(伏瓠長嘯)¹⁰⁾ 후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네.
아이가 해를 피해 뽕나무 아래에서 즐고 있다가
할머니가 때려서 깨움에 성질을 내네.
이웃집 계집애는 나이 열세 살에
항상 바닷가에서 놀아 능히 깊이 들어가네.
홀로 노는 것이 남자아이와 같고
오랫동안 뽕나무 아래에서 낮잠 자다 꿈속에
어느 때나 집안을 넉넉하게 일으킬 것이며’

10) 잠수부들이 채취한 전복과 소라 등을 담은 망사리는 물에 잘 뜨는 박으로 태왁에 묶어 물 위에 띄어 놓는다. 자맥질을 통해 폐류나 해조류를 채취하면 물 위로 올라와 망사리에 담은 후, 태왁을 잡고 다음 자맥질을 위해 숨을 고르며 부르는 긴 휘파람을 말한다.

어느 때에 성인이 되어 명예를 얻을 것인가
 가련하다 누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리오마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가르치는구나.
 이것을 얻어 살아간다고 자랑하고
 이것으로써 앞일을 계획하는구나.
 못 부모들의 잃어버린 그 사랑을
 문자를 가르쳐 벼슬길에 나가기를 권하노라.

이 시를 통해 볼 때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인해 수탈이 극심했던 조선 후기 횡간도 잠수군의 생활은 참으로 힘겨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2) 두룩여 미군폭격 사건

횡간도는 한국전쟁 초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곳으로, 1950년 8월 9일(음력 6월 26일) 남면 횡간도와 금오도 사이에 있는 ‘두룩여’ 주변 바다에서 미군 전투기가 조기를 잡는 배들을 향해 기총 소사를 실시했다.

전투기가 세 번 지나간 바다에는 사람들이 흘리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화재, 횡간도를 비롯해 돌산 군내리와 신기 마을 사람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크게 다쳤다.

6.25전쟁 당시 전선이 여수 지방까지 남하하자 위기를 느낀 미군은 남면 소두라도 인근의 두룩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들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언자들이 비교적 많이 생존하고 있고, 인근의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는 편이다. 증언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1950년 8월 9일 두룩여 일대는 조기를 낚기 위해 인근 섬에서 출어한 배에 탄 주민들이 무명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다가 온통 하얗게 보였다고 한다. 점심때가 됐을 무렵 미군기들이 몇 차례 저공비행을 하더니 느닷없이 무차별 폭격을 가해 물로 뛰어들어 몸을 피해 보기도 하였으나, 무차별 기총소사에는 아무런 방어 대책이 될 수가 없었다.

전투기가 세 번 지나간 바다에는 사람들이 흘리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1999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조사를 통해서 화재, 횡간도를 비롯해 돌산 군내리와 신기 마을 사람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크게 다친 사실을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

3) 물이 부족한 섬 소횡간도

소횡간도는 해산물이 많고 고기가 잘 잡히는 섬이었으나, 섬 안에서 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크나큰 애로사항이다. 해발고도가 고작 50m이니 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지로 나갈 때 필수 장비가 육지에서 쓰는 풍통 같은 물장군을 배에 싣고 올 때는 물을 싣고 왔으며, 사나흘에 한 번씩 이웃 큰 섬으로 물을 길러 가야 했다. 이렇게 고생 끝에 섬에 우물이 발견되면서 물 문제가 조금 해결되었다.

4) 전기가 늦게 들어온 섬 소횡간도

소횡간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놀랍게도 2006년 12월이었다. 대륙도와 소록도 등 일부 섬에는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자가발전을 하고 있지만, 남면에 있는 섬 중에서는 상당히 늦게 전기가 늦게 들어온 것이다. 당시 송전철탑을 설치하고 전기선을 끌어온다고 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였다. 언론 등에서는 10명도 살지 않는 섬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고 난리법석을 떨기도 했다.

그러나 섬사람들에게 전기는 반드시 필요했다. 자가발전을 하면 하루 종일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몇 시간 동안만 가정에 공급되었다. 더운 한 여름에 에어컨커녕 냉장고조차 제대로 틀어놓지 못했다. 여수시에서 자가발전을 위한 유류비를 지원해주었지만, 멸치를 잡아 멸막에서 삶고 말릴 때는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을 설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사실 상당히 좋은 대안이었지만, 소횡간도 주민들은 송전탑을 원했다. 평상시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전기가 너무나 간절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50미터가 넘는 송전탑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렇게 작은 섬에 들어서게 되었다.



소횡간도 전력공급 기념 표지판¹¹⁾

11) 김준, 『섬문화 답사기 여수고흥편』, 2012

3. 섬 생활의 변천

가. 횡간도의 생업

횡간도 인근은 각종 해산물이 풍부한 청정 해역일 뿐만 아니라 생육 조건이 좋아 그 맛이 좋은데, 특히 횡간도에서 나는 ‘신갱이파래(일명 썰치포래)’는 그 맛이 독특하여 옛날에는 궁중까지 진상했다고 한다.

대횡간도와 소횡간도의 섬 주민들은 마을 앞바다에서 봄이면 도다리, 여름엔 문어, 가을엔 삼치와 갈치, 겨울엔 도미와 광어를 잡아 소득에 보태고 있다. 주민은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나머지는 농업과 어업을 겸한다.

대횡간도는 과거 농경지에서 쌀, 보리, 콩, 녹두, 고구마 등을 생산하였다. 지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쌀이나 보리 등은 재배하지 않고, 방풍을 비롯해, 상추와 배추, 땅두릅, 시금치, 마늘, 고추, 콩, 옥수수, 가지, 호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

대횡간도는 멸치잡이 낭장망 어업이 성행하였고, 가자미, 쥐치, 도미, 전어, 낙지, 문어 등을 어획하였다. 바다 특산물로는 돌김, 돌미역, 툇, 천초 등이 있었는데, 품질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홍합이 많이 나서 갯가 바위에 불을 피워 돌을 달군 뒤 지게로 홍합을 쳐다가 쏟아 놓으면 뜨거운 돌에 입을 벌린 홍합 속에서 알을 꺼내 말려서 팔아 큰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한때 가두리 양식어업이 크게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지금은 우뚝가사리, 전복, 툇, 미역, 썰치파래, 해삼 등을 주로 채취하고 있다.

소횡간도는 남면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면 파도가 섬을 덮칠 정도이다. 그러나 남면의 11개 섬 중에서 미역과 홍합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멸치가 최고로 많이 잡혀 한때 ‘돈섬’이라 불리기도 했다.

나. 해운교통

대항간도와 소항간도는 대두라도와 소두라도의 해운교통과 비슷하다. 차도선 해동스타호가 2006년 12월 1일부터 여객선으로 정식 취항하여 운항하다가 해동스타호의 노후화로 신아해운 소속의 한려3호가 하루 4회 운항하고 있다.

소두라도는 정기여객선이 다니지 않았으나 여수시에서 도선을 마련해 2023년 말부터 섬섬여수2호가 화태도 월전항에서 소두라도까지 운항하고 있다.

다. 횡간도 주민들의 생애사

1) 대항간도 박상기 님

- “딸네 집 가는 것이 부산 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다.”

횡간도를 찾아간 날은 바람이 많이 불었다. 섬의 바람은 제법 매서워 바람에 날린 해면은 흰 물보라를 하얀 머리카락 날리듯 일으켰다. 선착장에서 내려 동네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동네 길로 접어드니 도로 위가 온통 은빛으로 덮여 있었다. 무엇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 작은 멸치가 도로 위 그물망 위에 뿌려져 있었다. 횡간도가 멸치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온 마을 도로에 멸치가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담벼락 의자에 앉아 햇살받이를 하고 있는 마을 주민 한 명이 눈에 띄었다. 무작정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물어보자 괜찮다고 하신다. 집안에 계시던 부인도 나오더니



박상기 씨와 부인 이백덕 씨

반갑게 맞이해 준다. 바닷바람이 조금 매섭게 불지만, 따뜻한 겨울 햇살이 좋기만 하다. 박상기 씨 부인은 멸치그물에 함께 들어온 전어를 삶아 겨울 햇살에 말리고 있었다,

박상기 씨는 올해 나이 68세로 고향이 황간도인 아버지와 돌산 군내리가 고향인 어머니 사이에서 8남매 중 맏이로 태어났다. 식구들이 많아 초등학교만 졸업한 후에 진학하지 않고 지금까지 평생을 황간도에서 살았다. 그 당시 동창생은 18명인데 남자가 8명이었고, 여자가 10명이었다. 동창생 대부분이 초등학교는 황간도에서 졸업하였으나 중학교에 진학한 친구는 몇 없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는 한 명밖에 없었다. 친구들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집안을 돌보는 일들을 했다. 열다섯이 되자 해태밭이 있어서 해태(김)양식을 하였고, 배를 타고 나가서는 고대구리를 하기도 했다. 좀 더 나이를 먹고는 멸치 낭장망을 하면서 동생들을 대학교까지는 못 보내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다 보냈다. 섬을 지키면서 바다가 내어주는 자원으로 살아왔지만, 정부시책으로 어려움도 많았다. 어려움을 준 정부시책은 고대구리 금지 때문이었는데 조업 금지로 어민들의 생활만 어려워지고 남획을 금지하여 어장을 살린다는 바다는 더 황폐해졌다고 당시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옛날엔 김양식, 고대구리, 멸치잡이를 쉬지 않고 철 따라 바다가 주는 것으로 일했지.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고대구리를 일체 못하게 했지.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니 지금까지 하고 살았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여. 고대구리를 한다고 모든 고기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고리구리를 해야 바닷속 빨도 안 썩고 그렇지. 고대구리를 없애고 나서 고기가 많아진 것도 아니야. 고기가 없어. 낙지, 새우 매일 가서 이렇게 굶으니까 고기가 없어지지 않아. 잡어도 있고 낙지가 그때 당시 안 잡으면 산으로 기어 올라갈 줄 알았지. 물이 썩어버리니까 오히려 없어”

한편, 바다가 오염되고 기온이 상승하는 등 이상기온으로 그 유명한

황간도의 멸치가 3~4년간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멸치가 많이 잡혔다 한다. 황간도에서는 이웃 섬에 비해 젊은 사람들 5명이 멸치잡이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마을에서 30여 호가 멸치잡이를 하기도 했다. 황간도에서 멸치가 날 때면 길위에 멸치를 널다보니 사람이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가 선박 감척도 하고, 주민들은 나이가 많아진 데다 최근에는 멸치가 잡히지 않다 보니 조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 박상기 씨는 특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도 멸치잡이를 하고 있다.

“바다가 주는 대로 잡아서 용돈벌이도 하고, 또 놀고 놀다가 들면 잡고 안 들면 뭐. 애태운다고 고기가 잡혀주는 것도 아니고. 허허.”

황간도가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었는데 주민들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서 여쭙어보았다.

“2002년인가 2003년 2년 동안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두 번 다 실패했지. 이번에 가고 싶은 섬에 선정이 되어서 기대는 하고있다. 하지만 걱정도 있다. 분명 발전이 되긴 할텐데 발전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늙어가고 있는데 발전해 봐야 뭐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발전이 되든가 말든가. 그런데 사람 한 50명 사는 섬인데 주민 전부가 다 아파서 골골하고 그래서 사람이 오게 하는 섬으로 만들 사람이 없어요.”

박상기 씨의 부인 이백덕 씨는 삼일면 자내리가 고향이란다. 어려서 이현덕이라고 부르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현덕의 한자이름인 백덕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중매로 박상기 씨와 맞선을 보고 결혼하였다.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 모두를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그래서 3명 모두 여수 시내에서 ‘사글셋방’을 얻어 자취하며 학교를 다녔는데 자녀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뒷바라지하는 이백석 씨도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장성한 자녀 중 한 명은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원생들이 줄면서 잠시 쉬고 있고, 한 명은 식당도 하면서 다들 자신들의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이백덕 씨는 친정어머니가 하던 말을 대신으로 “너희 집 가는 것이 부산 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할 정도로 시내에서 횡간도로 들어오는 교통편은 쉽지 않았다. 이백덕 씨가 시집을 당시만 해도 섬에 수도가 없어서 샘에서 물을 길러 물동이에 이고 와야만 했다. 이백덕 씨의 친정아버지가 자신이 우겨서 딸을 섬에 시집 보내 고생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지 설날에 친정에 가면 박상기 씨에게 “사위, 우리 흰덕이 고생시키지 말고 요리(이렇게) 매는 물지게로 물 좀 짚어다 주소. 식구는 많고 길러다 먹을건가?” 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어린 딸을 먼 섬으로 보내고 걱정했던 부모님의 심정이 느껴진다. 지금은 수도 시설도 되어 있고, 담수화 시설도 되어 있다고 하면서 부부는 한바탕 정겹게 웃는다.

2) 대횡간도의 여장부 강형숙 씨



강형숙 씨

강형숙 씨는 이웃의 어머니, 할머니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고 한다. 그래서 비록 지금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태어난 고향을 지키면서 더 나은 마을로 변해 갈 거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하다. 그 꿈꾸는 길에 무엇을 할 것인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나만 살고 말 것이 아닌 후대까지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해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앞장서서 고민하는 강형숙 씨는 횡간도를 지키는 여장부이다.

올해 66세인 강형숙 씨는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어색한 여장부의 느낌이다. 횡간도에서 태어나 살다가 객지로 잠깐 나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어도 결국은 횡간도에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횡간도가 고향인 아버지와 개도가 고향인 어머니 사이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바로 위 언니와 마찬가지로 집안의 살림 밑천 역할을 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낭장망을 주로 했는데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횡간도 주민 대부분은 낭장망으로 멸치잡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주변 바닷속 지형이 바위보다는 자갈한 자갈로 되어 있고, 섬 뒤쪽에는 수심이 깊은 곳도 있으며, 빨이나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돌과 작은 돌이 적당히 섞여 있는 좋은 어장이었다. 횡간도의 멸치낭장망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 왔는데 지형과 물살 등 적당한 자연환경 덕분에 멸치가 많이 잡혀 풍족한 섬이 될 수 있었다.

강형숙 씨는 돌산 울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돌산에서 잠깐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 16~17살에 서울로 가서 직장생활을 했다. 언니가 먼저 서울에 가 있어서 언니를 따라갔는데 공단 수출업체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을 하면서 공부방을 다녔다. 혼자만 있었더라면 어려웠겠지만 다행히 언니와 함께 있어서 가능했다. 서울에서 5~6년 정도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결혼했는데 믿을만한 친척이 증대를 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오빠와 결혼하고 아들 셋을 두었다.

결혼 후 남편은 멸치어장을 아주 크게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당시 횡간도는 좋은 어장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으나 섬에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근처 섬에 중고등학교가 있다 해도 어차피 자취나 하숙생활을 해야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이들을 여수 시내로 진학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횡간도와 여수 시내에 두 집 살림해야 했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지어서 3명의 아들 모두 잘 커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업했고, 둘째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셋째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

한편,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는 노후에 자식 덕 보고 살 거라 했는데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아쉽다고 한다.

해방 이후 사회가 혼란스럽고 5년 뒤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다들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는데 특히 도서지역민의 생활은 더 어려웠다. 바다에 나가 조업하기가 어렵다보니 한국전쟁 3년 동안 바다에 의지하기보다는 농사에 의지해야 하는데 작물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때 횡간도의 인구가 5~600여 명 이상이었고, 가구 수도 100호에서 105호 정도 되었다.

특히 횡간도는 해초가 많아 전복도 많았고, 해산물이 풍부했다. 풍성한 어장으로 섬에서의 살림살이는 그리 어렵지 않을지라도 섬사람들은 돈을 벌어 은행에다 예금한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금고와 같은 께쪽에다가 돈을 담아놓고 살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은행과 보험회사도 들어오고 저축이나 적금도 하지만 당시에는 돈을 적금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

지금 강형숙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한다. 남들이 보기엔 자식 농사 너무 잘 지었고 웬만큼 성공한 삶이라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함이 아쉽다고 한다. 여수에는 아파트가 두 채나 있고, 나이가 아직 젊기에 뭐든지 특별한 일을 하고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운전면허증도 따고, 횡간도를 떠나 다른 일도 해봤지만 내가 태어난 횡간도가 좋고, 나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냈는데 자유롭지 못한 건강이 아쉽단다. 횡간도에 살면서 많은 섬 복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복지가 많이 좋아진 것을 섬에 살면서도 느낀단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으로 자급자족이 되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눠먹는 개념이다 보니 시골에 사는게 정들고 엄마들 하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마주 보고 웃고 그게 행복이지”

강형숙 씨는 살고 있는 횡간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자긍심이 높았지만, 사라져 가는 문화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마을이 생기고 사람 산 지가 한 350년 된 걸로 알아. 섬에는 당집도 있고, 후박나무 군락지도 있고, 700여 년 된 소나무도 있어.

저기는 해풍을 막을 수 있는 방풍림으로 그런 것이 참 예쁘게 잘 돼 있어. 토속적인 문화도 중국의 장수인 관우를 기리며 제를 지내던 관왕묘도 있지. 아쉬운 일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독교 문화가 섬으로 들어오면서 산제를 지내거나 당집이나 관왕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없어졌어. 아깝지만 그것을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래.”

다만,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섬의 현실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주민들이 점차 고령화되다보니 섬 역시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나이들고 어렵고 그래. 사람이 늙어가다 보니까 마을도 늙어가는 거야. 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들이 이제 다 노후되고 늙어가서 사람 늙는 것과 동네 늙는 것이 같은 거야. 사람하고 동네가 같이 늙어가는 거야”

강형숙 씨는 점차 나이를 먹고, 몸 건강도 나빠져서 어장의 규모를 감축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에 안타까움도 함께 느끼고 있다.

“횡간도의 농산물은 농사가 잘되었다고 해도 판로 유통과정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차를 타고 다시 가야 하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아. 이웃하고 있는 섬 사정은 다 비슷비슷 해”

강형숙 씨는 비록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횡간도가 너무 좋다고 한다.

섬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속이 답답하고 힘들 때 바다를 바라보면 너무 좋으며, 비록 태풍처럼 자연재해가 올 때는 무섭기도 하지만, 잔잔하고 확 트인 바다를 보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한다.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내주고 있어! 하지만 요즘 걱정은 깨끗한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는 70살 가까이

다 살았다고 쳐도 우리 후대들도 이 바다에 의지해서 계속 살아
가야 하는데 지금 쓰는 어구들이 다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나
일론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환경오염을 시키
는 것들이고 더 큰 문제는 사면이 다 바다인 섬이기에 바람 타
고 외지에서 몰려오는 이 쓰레기들이 처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 결국은 바다를 우리가 망쳐왔고, 우리가 못살게 되겠
구나 싶어 그게 좀 미안하고 한스러울 뿐이지.”

강형숙 씨는 최근 횡간도가 가보고 싶은 섬에 선정되고, 국가에서 막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마을이 새롭게 단장된다고 하여 기대에 부풀어
있다. 노인이 꿈을 꾸다는 성경 말씀처럼 강형숙 씨도 나이는 들었지
만, 마을을 가꾸는 일에 일조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길을
다듬고 꽃을 심는 일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마을 사람들
과 이야기를 나눈다. 고향인 횡간도는 강형숙 씨가 살아가는 안식처
로 비록 섬에서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불행하지는 않다고. 불
편과 불행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형숙 씨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한다.
옛날에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지 잘 산다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란다. 그러다 보니 힐링할 수 있는 장
소를 많이 찾게 되어 횡간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이라 믿는다.

“사람들이 늙어서 모든 젊어서 모든 우리 마을을 다녀간 사람이
야, 내가 잠깐 얼마만이라도 1시간, 2시간 동안만이라도 그 섬
안에 있었을 때 행복했고, 또 섬에 가서 즐길거리가 있어서 즐겼
다면 그것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것에 서로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있
는 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봐.
사람이 적든 크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인권은 다 존중
되어야 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찾아야 하지만 그 마을
에서, 주변에서, 관에서, 나라에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
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 소횡간도 박영철 어르신

■ 섬 부모님들의 송고한 희생

소횡간도는 정기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들어가기 쉽지 않다. 대횡간도에는 여객선 한려3호가 다니지만, 소횡간도에는 2023년에야 섬섬여수2호가 들어오게 되었다. 사정상 섬섬여수2호는 타지 못했으나, 횡간도에 사는 친지어른이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소횡간도로 배를 태워주셔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박영철 어르신

섬 날씨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바닷바람이 너무 매섭고 큰 배가 지나갈 때면 작은 배는 곧 뒤집힐 것처럼 기우뚱거린다. 이렇게 무서운 바다도 마냥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다. 잔잔해지면 너무 평안하게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주는 엄마의 너른 품과 같이 변한다. 언제든지 힘들 때 이리로 오라고 하는 것만 같다.

횡간도에서 작은 배를 타고 10분 정도 가니 소횡간도에 도착한다. 섬의 첫인상은 화정면 낭도에서 바라보던 추도와 같은 느낌이다. “아, 저 곳이 소횡간도구나.” 다른 곳에서 이 섬을 본다면 어느 섬일지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도 여러번 이 소횡간도를 와 봐야 어느 곳에서 보든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소횡간도에 처음 왔으니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했는데 박영철 어르신을 소개받았다. 선착장에 내려서 동네로 걸어가는데 대문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다. 혹시 박영철 어르신 댁이 어디인지 물었더니 여기가 맞는데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횡간도에 사는 박영자씨의 소개로 왔다고 하니 반갑게 어서 들어오라고 하신다. 뜻하지 않은 육지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따뜻한 유자차도 내어 주었다.

박영철 어른신의 아버지는 남면 금오도에 있는 우학리가 고향이고, 어머니는 같은 금오도의 심포가 고향이란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소횡간도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박영철 어른신의 아버지는 독자였지만 슬하에는 7남매를 두었다. 박영철 어른신은 올해 77세로 1948년 셋째로 태어났는데, 위로는 누님들이어서 집안에선 장남이었다. 초등학교는 할아버지 댁인 우학리로 옮겨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해초류 작업 등 집안 생계를 잇기 위한 가업을 함께 해야만 했다.

당시만 해도 바다에 나가 갯것을 하면 해삼, 해초, 툫, 홍합이 많이 나왔는데 가사리 등 해초가 제법 비싸서 그것을 팔아 살림살이에 보탬다. 다만 바닷일만으로는 부족해서 농사를 지었고 소도 키웠다.

박영철 어른신이 어렸을 때만 해도 소횡간마을에는 6가구가 살았다. 1959년 13살이 되던 해 추석 전날 사라호 태풍이 불어 마을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다. 바닷가에 있던 집은 모두 없어져 버렸고, 흩어진 조각들로 언덕 위에 집을 지어 살았다. 20여 년이 지나 전기가 들어오자 다시 바닷가에 집을 짓고 내려와 살게 되었다. 현재는 6가구가 살고 있다.

박영철 어른신은 스물다섯에 결혼했다. 부인의 성함은 조순임이고, 올해 73살로 1952년생이다. 대두라도 선창마을이 고향인데 대횡간도에 살던 사람이 중매를 했다. 당시 섬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부모님끼리 선을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식 전까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했다. 사실 아내는 소횡간도로 오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장인께서 슬하에 딸이 많았는데 소횡간도로 시집 보낸다고 하자 친척들이 장인에게 편잔을 많이 주었다고 한다. 박영철 어른신의 장인은 조순임 씨에게 “너에게 그냥 해줄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가”라고 하면서 시집보냈다고 한다.

한편, 조순임 씨는 자기 대신 아이들을 키워 준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우리와 같이 살다가 애들이 여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때

손주들 밥해주고 그런다고 시내로 함께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여수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여수에다 집을 하나 샀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애들 밥 해 주고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보내주고 대학은 이제 애들이 가서 밥을 해 먹으니 까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운 것이지요.”

박영철 어르신은 슬하에 아들 둘과 딸 하나, 3남매를 두었다. 안타깝게도 막내아들이 29살 때 제주도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막내아들에게 자식이 2명이 있었는데 큰아이는 5살이었고, 둘째는 유복자로 태어났다. 조순임 씨는 막내아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하는데 남편인 박영철 어르신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며 성화를 부린다. 화를 내는 목소리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픈 속마음이 묻어난다.

어렵게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대학도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후에는 크게 운영하던 낭장망 사업 규모도 줄이고, 좀 편안하게 살만해지자 불운이 닥쳐왔다.

박영철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 폐 한쪽을 잘라내야만 했다. 얼마 후에 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니 이번에는 간에 종양이 생겼다고 해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거기에다 간에 물이 찼다고 해서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야 했으니, 기가 막힐 일이 연거푸 생겼던 것이다. 다행히 치료가 되어 지금은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신다.

박영철 어르신과 조순임 씨를 만나 짧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작은 섬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애환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여수 시내로 나가야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자취를 하게 할 수 없으니 가족 중 누군가가 함께 따라가서 생활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비록 나는 못 배워서 이런 섬에서 살고 있지만, 자식만큼은 많이 가르쳐서 이런 섬에서 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부모의 심정은 섬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나타나는데 비슷한 처지의 섬마다 부모의 숭고한 희생을 보게 된다.

4. 횡간도의 민속문화

가. 횡간도의 지명유래



대황간도 지명지도



소황간도 지명지도

1) 대횡간도

- 간담여 <여> : 횡간도 남쪽 끝에 있는 여
- 간땀끝 <해안> : 횡간도 남쪽 끝의 간담여가 있는 해안 끝
- 잔꼴창 <골짜기> : 횡간도 남쪽 끝에 있는 골짜기
- 요망산 <산> : 조선시대 봉화를 올리던 요망소가 있던 산. 지금은 헬기장으로 사용.
- 고무샘 <우물> : 마을 공동우물로 빨래터로 사용됨. 고무대야를 이용한 것에서 고무샘 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임
- 당산 <제당> : 횡간도의 당집이 있는 당산으로 당숲이 잘 보존되어 있음
- 감뚝년 <여> : 횡간도 남서쪽에 있는 여
- 연목끝터리 <해안> : 여가 있는 목의 끄트머리
- 오지바구 <바위> : 횡간도 선창의 바위
- 느린여 <여> : 횡간도마을 북서쪽에 있는 여
- 채일치(첼치 = 셸치) : 등대가 있는 사주(횡간도, 소횡간, 나발도의 육계사주를 지방에 서는 셸치라고 함)
- 새땀 <지역> : 횡간도 북서쪽 지역 이름. 셋바람이 닿는 곳
- 개앞 <해안> : 횡간도마을 북쪽의 해안
- 한구까끔 <산> : 횡간도마을 북쪽 해안
- 말끝 <해안> : 횡간도마을 북쪽 해안
- 놀이청 <고적> : (청노리) 횡간도 북쪽의 평평한 바위지대로 조선시대 전라좌수사인 유성채 수사를 비롯해 방답첨사 및 휘하들이 이 바위에서 놀이를 한 후 이를 기념하여 석각문을 새겼다. 놀이를 한 곳이라 하여 놀이청이라 하며, 맞은 편 돌산의 성두와 작금사이에 있는 바위를 불바구라고 하는데 놀이청에서 불화살을 쏘었다고 한다. 실제거리를 재어보면 1km가 넘어 화살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임
- 벼락넘 <지역> : 횡간도마을 북동쪽 해안
- 큰여 <여> : 횡간도마을 북동쪽 해안에 있는 여
- 성주동밑 <지역> : 성주할머니가 굴러진 곳이라 함

- 빈주굽턱 <지역> : 횡간도마을 동쪽 해안으로 검은 바위가 많은 지역임
- 차돌배기 <해안> : 횡간도마을 동쪽 해안으로 바위에 차돌이 박혀 있음
- 모띠얏 <해안> : 횡간도마을 북동쪽 해안
- 모녀 <여> : 횡간도마을 북동쪽 해안에 있는 여
- 상여채[생여채, 상여집] <지역> : 횡간도마을 동남쪽 해안으로 마을 상여집이 있던 곳
- 넙덕여 <여> : 횡간도마을 동남쪽 해안에 있는 넓직한 모양의 여
- 큰샘(당산밑) <샘> : 관왕묘 밑에 있던 마을의 큰 우물

2) 소횡간도

- 각시여 <여> : 하체는 물고기이고, 상체는 사람인 각시가 살고 있는 여
- 각시물 <해안> : 각시여의 육지 쪽 지명. 물은 썰물 때 드러나는 해변
- 고시박 <바위> : 소횡간도에 있는 바위
- 대랭이 <지역> : 소횡간도의 지역 지명
- 샬치 <사주> : 대횡간도와 같이 사주를 말함
- 넙덕여 <여> : 소횡간도 동쪽의 여
- 시끼미 <만> : 소횡간도의 해안
- 큰여 <여> : 소횡간도 동쪽의 여
- 큰뫼문 <지역> : 소횡간도 동쪽 지역
- 큰산 <산> : 소횡간도의 큰 산

나. 횡간도의 설화

1) 설화

(1) 원님과 강씨의 벼슬 매수 사건

1896년 돌산군이 세워졌을 때,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원님을 찾아가 관직을 사려고 많은 돈을 주었으나, 관직은 얻지 못한 채 원님이 중앙 관리로 올라가게 되었다. 강씨는 원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 하면서 어떻게든 한자리를 마련해 주고 가도록 간곡히 사정하였지만, 거절당하자 어쩔 수 없이 원님을 돌산까지 뺏길로 모셔다 주었다.

원님을 모시고 가던 강씨는 벼슬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물로 뛰어들어 죽은 척 잠수하여 멀리 가 숨어버렸다.

다음 해 원님이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을 때, 강씨는 한양으로 올라가 그 원님을 만나 귀신인 척 속이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의금부에 알리겠다고 호통을 치자 기겁을 하며 받은 돈의 두 배를 내놓자 받아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2) 신령스러운 괴목(느티나무)

마을 중심부에 괴목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의 나이를 50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 노인들은 이 나무의 잎이 피는 것을 보고 그 해의 풍흉(豊凶)을 점쳤다. 나무의 북쪽 가지가 무성하면 윗녘이 풍년이 들며, 남쪽 가지가 무성하면 아랫녘 시절이 좋다고 전해진다.

1960년대 마을에 앰프 시설을 하기 위해 이 나무에 못을 박고 스피커와 전선을 매달았는데 나무에 못을 박은 사람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고 앰프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무당에게 알아보니 이 괴목에 못을 박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어 즉시 못을 빼고 나니 복통도 그치고 앰프도 다시 가동되었다고 한다.

다. 횡간도의 음식문화

횡간도는 수산물이 풍부하였으며, 특히 전복은 으뜸으로 쳐서 궁궐 진상품으로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육계사주 셀치에서 나는 파래는 맛과 향이 좋아 예로부터 파래하면 횡간도 파래를 제일로 인정했다고 한다. 당제를 모실 때 신위가 말이었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리던 음식은 주로 나물이 많았다고 한다. 횡간도 사람들의 특별한 전통 음식은 쫄복시래기된장국이며, 현재까지 겨울이면 별미로 요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쫄복시래기된장국



파래지

라. 횡간도의 신앙

1) 대횡간도의 당제

대횡간도는 돌산도, 화태도, 개도, 백야도, 곡화목장처럼 말을 사육했던 섬으로, 당집은 마을 동쪽 산 중턱에 있고 신체(神體)

는 말이며, 당산나무도 있다.

당집 제실에는 백지에 용마가 그려져 있고 흙으로 만든 말 2마리가 있었으나, 현재는 용마 그림이 없어지고, 말도 남아있지 않다. 말 2마리를 신체로 만든 것은 말의 번식을 기원하여 암수 한 쌍을 만든 것으로 보이나, 40년 전 교회가 들어오면서 당제가 중단되었다. 대횡간도 당제는 목장이 설치되자 국가적 차원에서 말의 성장과 번식을 기원하던 말 신앙이 민간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당제는 정월 초하룻날 밤 12시쯤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정월 보름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삼월 삼진날 지냈다. 당주는 선달 25일쯤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당주가 될 사람은 집안에 재앙이나 출산한 일 등이 없고, 부부가 생기에 맞아야 하며 덕 있는 사람이라야 했다.

당주로 뽑힌 사람은 초상난 집이나 어린애 낳은 집 같은 곳에 갈 수 없음은 물론 싸움질하는 데에도 가지 않아야 하며, 모든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도 당주가 된 사람을 조심히 대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제당(산당)은 이 마을 동쪽 산 중턱에 있고, 당산나무도 있다. 산당 제실에는 백지에 그려진 용마가 있고, 흙으로 만든 말 2마리와 그 곁에 알처럼 생긴 둥근 돌이 하나 놓여 있다.

당주는 선출된 다음날부터 당집을 청소하고 금줄을 쳐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고, 외출을 삼가며 목욕재계하는 등 정성을 다한다. 집집마다 끌고루 당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면, 당주가 여수 시장에 가서 제물을 사오는데, 오가는 길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삼가고 물건값은 에누리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준다.

제물은 은행, 밤, 대추, 꽃감 같은 과일과 도라지, 버섯을 비롯해 명태 등 간소하게 준비하며, 밤 12시쯤 향을 피우고 과실, 명태, 산채 등 제물을 진설한 후에 제사 쌀을 7번 씻어 불을 지피 메를 지어 올린다.

헌작은 하지 않고 집집마다 소지를 올린다. 제상에 차려 놓았던 제물은 한꺼번에 모은 뒤 한지에 싸서 5개로 만든다. 당집에서 매구를 치고 내려오면서 당집 아래 삼거리, 공동 샘 옆 정자나무, 논등 위, 목념 등(현 노인당 옆), 리사무소 앞 다섯 곳에 묻는다.

이 다섯 곳은 마을의 정신적 지주 기능을 담당하는 당집, 생명수로서의 샘, 지금은 밭으로 변했지만, 십여 년 전까지 논이었던 곳의 풍년, 태풍이나 해일이 넘어오는 목념이는 바닷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곳, 그리고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공간인 리사무소를 의미하고 있다.

대횡간도의 장제는 상·중·하당에서 이뤄지는데, 상당은 당집이고, 중당은 제물을 묻은 곳으로, 묻기 전에 막걸리를 돌 밑에 부어 놓으며, 하당은 헌식을 차려놓는 마을 앞 빈터이다.

헌식은 정월 초사흘날 오전에 올리며, 마을 앞 빈터에서 매구를 치면 집집마다 제물을 1상씩 걸게 차려 가지고 나오는데, 1상에 메를 3그릇씩 차린다. 헌식상들은 집집마다 줄지어 두고, 여성들이 마을에서 준비한 술로 잔을 올리면 매구를 치면서 상에 절을 올린다. 여성들이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제물로 물밥을 만들어 바닷가에 한지를 깔고 그 위에 붓는다.

마을에서 제일 정결한 사람이 집집마다의 제물들을 조금씩 떼어낸 뒤 한데 모아서 물밥을 만들어 둘러메고 선착장으로 나아가 바다에 뿌리면서 마을 전체를 위해 기원을 한다. 고기와 해삼, 멸치, 해조류 등이 잘 잡히거나 자라고, 못된 잡귀와 병은 물아래로 떠내려가라고 비는데, 이것을 ‘거리 뱀인다.’고 한다.



당집 내부



당집

2) 소횡간도의 당제

소횡간도에서는 선달그믐날 자정에 당제를 모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당제를 모셨는지 전해오는 문헌이 없고,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한다.

소횡간도에는 상당과 중당, 하당이 있다. 상당은 마을 뒤편 산 중턱 당림에 있는데 따로 당집이 없고, 바위에 제를 모셨으며 신체는 산신이다. 중당은 마을에서 동북쪽 밭에 위치해 있으며, 하당은 마을 앞 바닷가에 위치한다.

당제를 지내기 보름 전에 마을 회의에서 당주 1명을 선출했는데, 당주는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따져서 생기복덕이 맞아야 했고, 집안에 상이나 출산이 없고, 병고나 불화가 없는 사람이어야 했다.

제를 지내기 일주일 전에 당주는 상당에 금줄을 쳐서 외부인 등의 출입을 금했다. 금줄은 반드시 왼쪽으로 꼬아서 만들었고 중간에 한지를 끼웠다.

제물은 메와 굻, 편, 명태, 과일(밤, 대추, 꽃감, 사과 등), 나물(도라지, 버섯, 콩나물 등) 등이었으며, 당주가 여수 시내로 나가 물건을 샀으며, 물건을 살 때 값을 깎지 않았다. 제비는 마을의 공동자금에서 지출하고, 부족할 때는 각호에서 균등하게 각출하였다.

당제를 모시는 날에는 마을사람들이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바깥출입을 삼갔다. 당주가 목욕재계하고 장만한 제물을 가지고 상당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중에 사람을 만나거나 더러운 것을 보면 내려와서 다시 목욕재계를 하고 올라갔다. 제는 유교식으로 지냈는데 당주가 제물을 진설하고, 제주 1잔을 올리고 재배한 후에 메를 상식했다. 마을의 평안과 풍년, 풍어를 비는 고축을 하고 제를 마쳤다.

상당에서 제를 모시고 나서 중당으로 내려와 헌식을 하고, 다시 바닷가로 내려와 좌우측 끝에 메를 묻었다.

소횡간도에서는 당제를 1970년대 초까지 모셨다고 한다. 그 후 인구감소 등으로 당제를 모시지 않고 있으며, 당제 전승의 의지도 거의 없다.



상당



하당

3) 횡간교회

대횡간도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1981년 3월 3명의 주민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같은 해 4월 5일 횡간교회를 설립하였고, 1981년 10월 27평 규모의 교회를 준공하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2024년 1월 1일 현재 최중빈 목사가 시무 중이다.

- 1981. 03. 횡간리 364번지(김재수 집)에서 주민 3명이 첫 예배
- 1981. 04. 05. 교회설립 예배
- 1981. 10. 15. 예배당 준공(횡간리 258번지에 벽돌슬레이트 27평)



횡간교회



횡간교회(2008년)

